

**또래코칭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학업적 측면을 중심으로-**

코칭플랫폼 당나귀

손은영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2.1 또래코칭

2.2 또래코칭의 구성요소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2.4 대학생활적응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3.2 가설설계

3.3 조작적 정의

4. 연구방법

4.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4.2 측정도구

4.3 자료분석

5. 결과

5.1 신뢰도와 타당도

5.2 상관관계 분석

5.3 구조모형 검증

5.4 가설 검증

5.5 매개효과 검증

6. 논의

6.1 시사점

7. 결론

7.1 결론 및 제언

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 대학생은 초·중·고 12년 동안 인생의 대부분을 정해진 틀과 미성년자라는 보호 아래 살아오다 대학에 들어오면서 한꺼번에 자유와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에 대한 적응, 그리고, 발달단계에 적합한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 해야 하는 대학생들은 학업문제, 대인관계와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업적, 사회관계적, 개인정서적으로 학교 및 전공과 진로 등 대학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인지, 행동, 정서적 기능을 수정하고 조정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진로 및 인성 교육과 같은 비교과 교육과정과 학제간 융합을 구축하여 대학생활적응을 독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학과 대학원에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코칭의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연구들이 있으며, 특히 또래코칭은 대학의 학업적 성공과 대학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론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또한, 또래코칭은 또래 상호간의 협력과 지지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주목 받고 있습니다. Baker와 Siryk는 개인의 성향과 행동방식에 따라 대학생활적응의 수준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대학 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4가지를 제시 했습니다.

이는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적 적응, 제도적 적응입니다.

이 4가지 요인들 중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학업적 적응에 관련된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중심으로 대학생활 적응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또래코칭은 학생들이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동료들로 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으며, 이를 통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또래코칭은 학업적 자기 효능감을 포함한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학생들이 동료로 부터 지지를 받음으로써 그들이 자신의 학업능력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또래코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를 입증하여 대학생들의 적응을 돕고 대학에서의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한 또래코칭 효과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 하려고 한다.

2. 선행연구

2.1 또래코칭

- ◆ 또래코칭(peer coaching)은 1980년대 이후 다양한 교육 훈련에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되어 지고 있다 (Gattellari, Tattersall, & Butow, 2005). 또래코칭은 개인의 직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하는 발전적 관계이며 일반적인 또래학습보다 더 집중적이다(Parker, Hall & Kram, 2008). 즉, 목적을 위해 상호협력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 ◆ Cole(2009)은 Vygotsky의 아이디어를 빌려 또래 간의 협력이 독립적인 학습보다 인지발달에 이점이 있다고 했다. 그들은 부족한 학습자가 우수한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잠재적인 개발이 일어나는 근접 발달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 Topping(2005)은 또래학습(peer learning)과 또래코칭이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증가시키며, 학습 과정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 Roscoe & Chi(2007)는 또래코칭 중 발생하는 대화의 질이 학습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힌다. 특히, 설명과 질문을 통해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이 학습자 스스로의 이해와 지식의 확장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 ◆ 남상은(2021)은 대학생 또래코칭의 필요성 항목 중에서 '학업, 대인관계, 진로 등 대학생활에 적응하는 데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대학생 또래 간 지지를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고, 학업포기, 중도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 ◆ 김성희(2022)연구에서 또래코칭은 대학생들의 자기주도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촉진하여 학업열의 및 대학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선행연구

2.2 또래코칭의 구성요소

◆역량개발 : 구성원 스스로가 학업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것

◆수행평가 :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감적 평가를 통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실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Stowell(1986)은 코칭리더십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처음 시작했으며, 그의 연구에서는 코칭리더십의 구성 요소를 방향제시, 역량개발, 수행평가, 관계로 제시하였다.

코칭리더십과 또래코칭은 구성요소를 공유하므로 또래코칭의 구성요소 또한 방향제시, 역량개발, 수행평가, 관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4가지 구성요인 중 역량개발과 수행평가의 2가지 요인을 적용하였다. 이는 역량개발과 수행평가가 대학생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증진시켰다는 선행연구(임이랑, 2020)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구성원 각자가 스스로 잠재력과 역량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역량개발과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시행해서 구성원 스스로 책임감을 높이는 수행평가가 또래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리더의 명확한 방향과 지시에 따른 수행이, 조직과 성과에 중요한 역할을 주는 방향제시(이준호, 2014)와 관계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관계(김동민, 2014)는 리더 개인의 영향력에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 또래코칭의 상황에서는 학습자 간의 수평적 관계와 공감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선행연구

2.3 학업적 자기효능감

- ◆ 학업적 자기효능감(Academic Self-efficacy)이란 학업과 관련한 자기 효능감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 역량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결과에 대한 신념이다(Bong & Shaalvik, 2003).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다(Britner & Pajares, 2006; Chemers et al., 2001; Jonson-Reid et al., 2005). 즉,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다.
- ◆ 김남순, 배종훈(1998)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직업의 선택 및 진로 의사결정에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았다.
- ◆ Arnold, Silvester, Patterson, Cooper & Robertson(2000)과 Srivastava, Judge & Kammeyer-Mueller(2006)은 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Malone(2005)은 코칭을 통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창주(2012)는 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 ◆ Zimmerman(1990)은 자기효능감이 자기주도학습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조성진(2009)은 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인다고 했다. 백은엽(2011)은 코칭리더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2. 선행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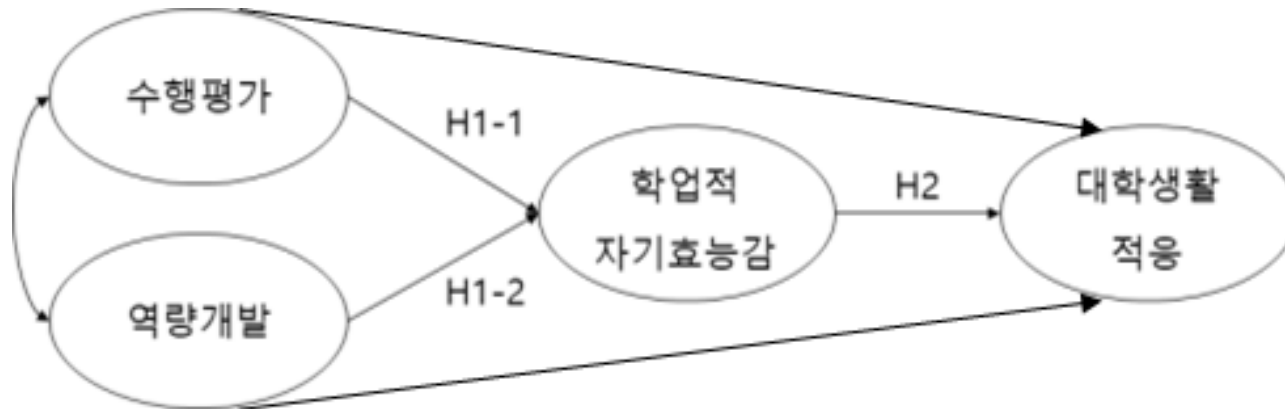
2.4 대학생활적응

국내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학 환경과 대학생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교환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욕구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맞춰나 가는 다차원적인 현상이라고 하였다(한덕웅, 전경구, 이창호, 1991; 김광현, 강성배, 2016.).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연구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Baker & Siryk(1984)의 연구이다. 그들은 대학생활적응을 대학 내에서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인관계나 과외활동 등의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며 대학이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라고 보았다.

3. 연구설계

3.1 연구모형



3.2 가설설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또래코칭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수행평가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역량개발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H2.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설계

3.3 조작적 정의

변인		조작적 정의	관련연구
또래 코칭	경험과 가치관이 비슷한 또래 상호간의 지지와 지원을 통해 개인적이고 전문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특징을 갖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또래의 특징을 활용하여 또래의 역량개발과 수행평가를 지원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돕는 코칭활동		Stowell(1986), Passmore & Brown(2009), Parker et al.(2008, 2015) 허영림, 정면숙 (2018) 남상은 (2021) 김성희 (2022)
	역량개발	구성원 스스로가 학업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협력하는 것	Stowell(1986), 나기현(2017), 임이랑(2020),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공감적 평가를 통해서 구성원 스스로가 실행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Zuberbühler et al.(2021), 김성희(2022)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 전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학업역량에 대한 느낌과 신념	Trawick(1992), Zimmerman et al.(1992), Williams & Coombs(1996), 김아영과 박인영(2001), 장윤숙(2019)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들이 대학내의 구성원 및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 높은 만족감을 느끼는 과정	Gerdes & Mallinkrodt(1994), 김은주(2007), 정은이, 박용한(2009), 김지현(2012), 남상은(2021), 김성희(2022)

4. 연구 방법

4.1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연구대상 :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 가운데 또래코칭을 경험한 학생

설문조사 : 338부 자료 중 296부를 최종적으로 실증분석

조사기간 : 2024년 1월10일~1월 30일

분석도구 : SPSS 25.0으로 자료를 점검하고 표본의 구성을 확인

AMOS 22.0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을 통해 모형을 검증.

분석절차 : 측정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가설 검증, 매개효과 검증

4.2 측정도구

본 연구는 또래코칭, 학업적 자기효능감, 대학생활적응 간에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근거로 구성하였다.

김성희(2022)의 연구에서 또래코칭의 하위요인으로 방향 제시, 역량개발, 수행평가, 관계의 요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역량 개발과 수행평가 두 가지만 사용하였다.

4. 연구 방법

<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비율(%)	합계
성별	남성	97	32.80%	296
	여성	199	67.20%	
연령	18~19세	0	0.00%	296
	20~21세	73	24.70%	
	22~23세	82	27.70%	
	24~25세	64	21.60%	
	26세 이상	77	26.00%	
학년	1학년	39	13.20%	296
	2학년	57	19.20%	
	3학년	60	20.30%	
	4학년	140	47.30%	
학과	인문계열	92	31.10%	296
	사회계열	65	22.00%	
	공학계열	67	22.60%	
	자연계열	39	13.20%	
	기타(예체능계열 등)	33	11.10%	
코칭기간	1개월 미만	37	12.50%	296
	1~3개월	74	25.00%	
	3~6개월	84	28.40%	
	6~12개월	52	17.60%	
	12개월 이상	49	16.50%	
코칭횟수	5회 미만	82	27.70%	296
	5~10회	95	32.10%	
	10~20회	64	21.60%	
	20~30회	23	7.80%	
	30회 이상	32	10.80%	

4. 연구방법

4.3. 자료분석

자료는 SPSS 25.0과 Amos 22.0을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자료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고, 구조 방정식 모델(SEM: Structural Equation Model) 방식으로 분석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은 측정 모형 검증, 구조모형 검증, 매개효과 검증으로 3단계 검증법을 실시하였다.

5. 결과

5.1 신뢰도와 타당도

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SEM)을 통한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2단계에 걸쳐서 시행하였다. 1단계에서는 측정모형의 적합도 및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적합도 검증은 χ^2 값과 χ^2/df 값, RMSEA, AGFI, CFI, TLI 값들을 통해 검증하였다. $\chi^2 = 239.057$, $\chi^2/df = 2.415$, RMSEA = .069, AGFI = .872, CFI = .952, TLI = .942로 모두 평가 기준에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측정모형은 적합도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표 >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적합도 지수	수치	평가기준
$\chi^2(cmin)$	239.057	-
df	99	-
p	.000	$\geq .05$
χ^2/df	2.415	$1.0 \leq \chi^2/df \leq 3.0$
RMSEA	.069	$\leq .10$
AGFI	.872	$\geq .85$
CFI	.952	$\geq .9$
TLI	.942	$\geq .9$

5. 결과

5. 1 신뢰도와 타당도

수렴타당도는 개념신뢰도(C.R.: Construct Reliability)가 .7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이 .5 이상이면 수렴타당도가 있다고 보았다. <표 3>을 보면 모든 요인에서 개념신뢰도 값이 .7 이상이며, 평균분산추출 값 역시 모두 .5 이상으로 측정모형의 수렴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내적일관성지수(Cronbach's Alpha)는 모두 .8 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 측정모형의 신뢰도 및 타당도

잠재변인	관측변인	표준화계수	S.E.	CR	개념신뢰도	AVE	Crb.Alpha
수행평가	수행평가1	1.000			.856	.599	.854
	수행평가2	1.067	0.094	11.409			
	수행평가3	1.229	0.095	12.889			
	수행평가4	1.239	0.095	13.09			
역량개발	역량개발1	1.000			.843	.641	.842
	역량개발2	1.109	0.08	13.938			
	역량개발3	1.109	0.081	13.76			
학업적 자기효능감	효능감1	1.000			.875	.638	.873
	효능감2	1.000					
	효능감3	1.256	0.071	17.739			
	효능감4	1.282	0.073	17.574			
대학생활적응	대학적응1	0.966	0.065	14.862	.915	.684	.914
	대학적응2	1.000					
	대학적응3	1.033	0.061	17.026			
	대학적응4	1.077	0.068	15.796			
	대학적응5	1.191	0.071	16.815			

5. 결과

5.2 상관관계 분석

판별타당도는 요인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 값과 평균분산추출 값을 비교하여 평균분산추출 값이 더 큰 경우 판별타당도가 있다고 보았다. 아래의 결과를 보면, 괄호 안의 값이 상관계수의 제곱 값으로 평균분산추출 값보다 모두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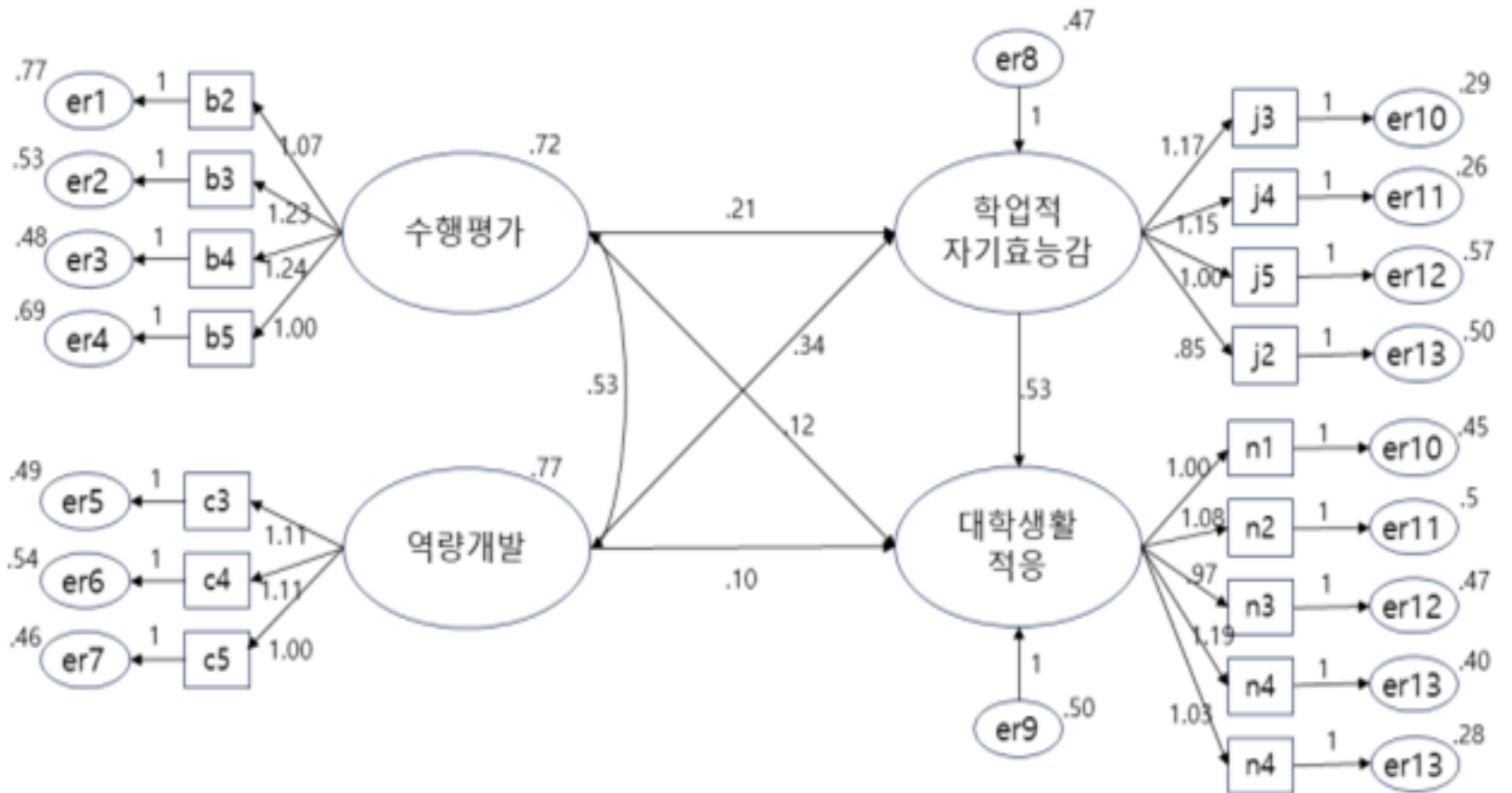
구성개념	수행평가	역량개발	학업적효능감	대학생활적응
수행평가	.599			
역량개발	.608**(.370)	.641		
학업적효능감	.428**(.183)	.447**(.200)	.638	
대학생활적응	.368**(.135)	.379**(.144)	.555**(.308)	.684

$p^* < .05$, $p^{**} < .01$.

5. 결과

5.3 구조모형 검증

<그림 1> 구조모형 검증



5. 결과

5.3 구조모형 검증

측정모형이 검증되고 가설 검증을 위한 구조모형의 검증을 시행하였다. <그림 1>. 검증 값들은 <표 5>에 그 결과가 나타났다.

$\chi^2 = 235.172$, $\chi^2/df = 2.400$, RMSEA = .069, AGFI = .872, CFI = 0.942, TLI = .953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5.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

적합도 지수	수치	평가기준
$\chi^2(cmin)$	235.172	-
df	98	-
p	.000	$\geq .05$
χ^2/df	2.400	$1.0 \leq \chi^2/df \leq 3.0$
RMSEA	.069	$\leq .10$
AGFI	.872	$\geq .85$
CFI	.953	$\geq .9$
TLI	.942	$\geq .9$

5. 결과

5. 4 가설 검증

<표. 6 경로계수 분석(n=296) >

	경로	계수	표준오차	t
수행평가	→	학업적 자기효능감	.210	2.276*
역량개발			.092	3.680***
수행평가	→	대학생활적응	.117	1.247
역량개발			.104	1.092
학업적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적응	.530	6.567***

$p^* < .05$, $p^{**} < .01$, $p^{***} < .001$

또래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모델을 경로분석 하여 가설 검증한 결과가 위에 나타나 있다. 수행평가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계수 값은 .210($t=2.276$, $p < .05$)이고 역량개발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대한 경로계수 값은 .337($t=3.680$, $p < .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또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서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경로계수 값은 .530($t=6.567$, $p < .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5. 결과

5.4 가설 검증

또래코칭에 해당하는 2개 요인, 수행평가, 역량개발 모두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여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계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표 7>에 가설 검증 결과가 나타나 있다. 수행평가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1-1과 역량개발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1-2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3이 채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연구가설검정>

연구 가설		검증 결과
가설1-1	수행평가	채택
가설1-2	역량개발	채택
	수행평가	기각
	역량개발	기각
가설2	학업적 자기효능감	채택

5. 결과

5.5 매개효과 검증

부트스트래핑 학업적 자기효능감 매개효과 검증

구분	대학생활적응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 신뢰구간	90% 신뢰구간
수행평가	.228	.117	.111 [†]	-.002~.231	.020~.217
역량개발	.282 [*]	.104	.179 ^{**}	.082~.351	.093~.313

$p^{\dagger} < .10$, $p^* < .05$, $p^{**} < .01$, $p^{***} < .001$.

AMOS의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이다(Preacher & Hayes, 2008). 역량개발의 간접효과의 값은 .179로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했지만, 수행평가의 간접효과는 .111로 .10 수준에서 유의미하여 marginal 하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트스트래핑에서는 역량개발의 매개효과는 검증되었지만, 수행평가의 매개효과는 marginal 수준을 나타내었다.

5. 결과

5.5 매개효과 검증

Sobel test 매개효과 검증

	경로	계수	표준오차	sobel test
1	수행평가 → 학업적 자기효능감	.210	.092	2.155*
	학업적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 적응	.530	.081	
2	역량개발 → 학업적 자기효능감	.337	.092	3.196**
	학업적 자기효능감 → 대학생활 적응	.530	.081	

$p^{\dagger} < .10$, $p^* < .05$, $p^{**} < .01$, $p^{***} < .001$

AMOS의 부트스트래핑 기능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은 가장 엄격한 방법이다. 따라서 조금 덜 엄격한 방식의 경우 marginal 하게 유의미한 수행평가의 간접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통계 프로그램이 아닌 공식에 따라 손으로 직접 계산하는 Sobel test(Sobel, 1982)가 그 방법으로 위 결과가 나타나 있다. 검증 결과 Sobel test 에서는 수행평가는 $z=2.155$, $p<.05$ 로 유의미했고 역량개발은 $z=3.196$, $p<.01$ 로 유의미했다. 즉, 두 요인 모두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하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6. 논의

본 연구는 출생률 저하와 학업 중단 학생 증가로 소멸 위기에 몰린 대학들에 또래코칭이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연구는 대학생들의 또래코칭 하위 요인인 수행평가와 역량 개발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로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매개로 대학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학생 또래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서 대학생활적응을 높인다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음에 의의가 있다.

6.1 시사점

첫째, 또래코칭의 구성요소인 수행평가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였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객관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또래코치가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피코치가 느끼게 하거나 공정한 평가가 되지 못한다고 느끼게 하면, 또래코치의 역량과 리더십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육으로 코칭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에 엄격한 기준을 세워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6. 논의

6.1 시사점

둘째, 또래코칭의 구성요소인 역량개발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였다. 역량개발은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식을 습득하도록 지원해 주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 역량개발의 핵심은 바로 직접적인 지원이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지식 습득을 돕는 등 수행평가와 더불어 매우 직접적인 지원이다.

본 연구를 통해 대학교 교과 및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에 또래코칭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대학생들의 학업 및 대학생활적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외부의 전문 코치가 아닌 대학생 스스로가 서로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대학생활적응을 해나갈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7. 결론

7.1 결론 및 제언

또래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래코칭의 하위 요인인 수행평가와 역량개발이 대학생활적응에 이르는 인과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코칭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에서 또래코칭의 하위 요인인 수행평가와 역량개발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수행평가는 말 그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기 때문, 평가의 결과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의 경험이 매우 중요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평가 결과가 좋았다면 수행평가가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역량개발 역시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역량개발은 구성원 스스로가 잠재력을 발견하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하게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홍계옥, 강혜원, 2010; 김정화, 김지심, 정애경, 2013; 김지영, 김은지, 김정섭, 2018) 결과가 일치한다.

7. 결론

7.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는 대학생 또래코칭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여 대학생활적응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검증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대학생 또래코칭과 관련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본 연구의 한계점이 있음을 밝히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AMOS 부트스트래핑(Preacher & Hayes, 2008)) 방법을 통한 매개효과 검증에서 역량개발은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수행평가는 미미(marginal) 하게 .10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반면에 Sobel test(Sobel, 1982)에서는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트스트래핑이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가장 엄격한 방법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미미(marginal) 한 결과는 반복 연구에서는 .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증이 있었으면 하는 바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상을 대학생 전체를 하였지만, 대표성을 확보할 만큼의 다양하고 많은 대학생 표본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또한 대학생이 아닌 전문 교육을 받은 외부 코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실험연구를 진행해서 그 효과성을 같은 변수로 실험하는 실험연구 역시 가능하다.

본 연구를 위한 문헌 연구에서 한계는 코칭 관련 연구들이 기업이나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고 대학생 관련 연구가 적다는 것이었다. 앞으로 대학생 코칭 관련 연구도 활발해졌으면 하는 바이다.